

高령者를 위한 集合住居施設의 共用空間 計劃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ublic Space Planning of Congregate Housing of the Elderly

박남희* / Park, Nam-hee

이상호** / Lee, Sang-Ho

Abstract

Aging society appears immediate social problem in Korea. Housing for aging is required independent and comfortable housing life to live considering about feature of elderly. It is necessary field to prepare. Aged person who suffers the aging process several stages gets changing weak, so living environment is important aging person aspect of soci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point. Finally, aged person living together requires facilities for the naturally communicating and active things. Community of aged person required organization of space for keeping independence and connection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space of community, housing for aging should have a different access route. In conclusion, congregate housing of the elderly should be planned organization of space to be solved anxiety and tension and to be aware of joining the community

키워드 : 집합주거, 공용공간, 노인행태

Keywords : Congregate Housing, Public Space, Behavior of the Elderl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사회 계층간의 빈부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전체 인구 감소,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 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를 비롯한 한국의 인구 층 변화 요인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경제산업화, 이로 인한 도시화와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의 전통적 개념과 형태가 붕괴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흔히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및 행동상의 기능 약화와 함께 사회적인 역할의 축소 경향을 나타낸다¹⁾. 이런 노화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형성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 변화에서 오는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교류를 중심으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고령자 집합주거시설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간의 사회적 상호교류가 있는 주거환경과 이웃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 등의 활력 있는 노인집합주거의 건축계획 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고령자로 들어서는 60세 이후의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합주거의 유형으로는 초기에는 자연환경이 쾌적한 전원형 노인주거 개념에서, 최근에는 사회와의 적절한 교류가 요구되는 경향으로 도시형과 도시 근교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주거 시설중 도시근교형의 유료노인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유료노인 시설에서도 유료양로시설 두 곳과 유료노인복지주택 한곳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른 고령화시대와 노인문제 및 노인시설의 고찰을 시작으로 노인시설의 분류에 따라 선정된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공용공간의 의미 및 노인시설에서의 공용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기존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또한 각 시설별 공용공간의 기능분석 및 노인의 예상행태 체크리스트는 기존문헌을 분석하여 결과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공간에서의 노인의 예상행태를 각 시설에 접목시켜 공용공간과 사회적 교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2. 고령자 집합주거시설의 이론적 고찰

2.1. 노인문제 및 집합주거시설의 필요성

1)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함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노인문제의 출발점은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통계청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는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이 3.0%에 비해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이 7.0%를 나타낸다. 즉 30년 사이 4%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40년에는 전체인구 46,743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2%를 넘어서 어느덧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 소요년수의 하하면 한국-19년, 일본-24년, 미국-71년, 프랑스-1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화현상은 한국사회의 노인문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런 문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인주거시설의 필요성을 요약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의 진전과 함께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노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이며 앞으로 자녀와의 별거 추세는 점점 더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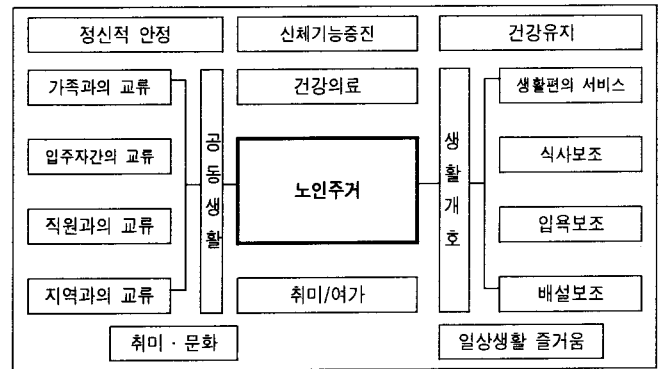
2.2. 집합주거시설의 정의 및 현황

유료노인주거시설이란 60세 이상의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입주시켜 고령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년층에게 있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신체적 특성에 맞는 건물설계와 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의 편의와 건강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된 노인공동체 주거형태를 뜻하며, 노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 개의 시설이 아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형성된 공동주거구역이다. 다음은 <표 1> 노인주거시설의 주요기능도이다.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진 다하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의 설치목적은 참조하더라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별 차이가 없다. 두시설의 다른 점은 양로시설은 입소보증금을 월 입소비용 1년 분 이내에 납부하고, 입소자가 퇴소할 때는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에게 반환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같이 노인주택을 노인에게 분양 및 임대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기숙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입소자들이 입소할 때 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하여 급식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받는 반면에,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은 주거시설과 비슷하여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이만이 거주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다. 또한,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이용 대상 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과 일반 의료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표 1> 노인주거시설(실버타운)의 주요 기능도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진 다하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의 설치목적은 참조하더라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별 차이가 없다. 두시설의 다른 점은 양로시설은 입소보증금을 월 입소비용 1년 분 이내에 납부하고, 입소자가 퇴소할 때는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같이 노인주택을 노인에게 분양 및 임대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기숙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입소자들이 입소할 때 보증금을 시설에 납부하여 급식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받는 반면에,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은 주거시설과 비슷하여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이만이 거주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다. 또한,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이용 대상 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보다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과 일반 의료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2.3. 집합주거시설의 주거환경

발란스(Valins, 1989년)³⁾는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인 선택의 기회를 늘린다. 노화현상 중 하나

2)토지공사,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연구, 1995

3)가족연구시리즈3,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총서, 노인과 주거(재구성), p.129

는 노인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노인주거 환경을 집단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범위를 가능한 넓게 허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둘째,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고 독립성을 조성한다. 노인에게 있어서 특히 스스로 하는 능력은 긍지를 갖게 하고 자존심을 향상시킨다. 노인을 위한 제반 시설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또 지나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독립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든다. 은퇴를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살던 이웃으로부터 이주하거나 친한 친구가 병에 걸리거나 친구를 잃게 되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노인에게 집단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넷째, 참여를 자극한다. 직업으로부터 은퇴, 또는 줄어든 수입 등으로 자존심을 잃게 될지도 모를 노인에게는 자존심을 되찾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뿐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하여 참여하게 하는 자극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다. 그리고 그 노인주거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워야한다. 고행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노인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2.4. 고령자 커뮤니티 및 공유의 유도

노인주거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은 다수의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장소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사용빈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시설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노인주거시설에 입주해 있는 거주자들은 외부사회활동을 통한 친구교제의 기회가 점차 감소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시설내의 공용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활발한 사회활동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여가활동과 사회교류는 주거와 인접 커뮤니티 내에서의 거주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며, 친교를 통해 건강한 정신적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에는 노인들의 사회생활이 전적으로 외부친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향상을 위한 공용공간 계획은 더욱 중요하다. 다음은 공유의 유도를 두가지 요건으로 요약하였다.

①사회적측면 :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확보된 개인적 공간과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공간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그중간적 성격의 반사적, 반공적공간도 완충영역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적 고려에서 공용공간의 제공만으로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위한 자율성이 사람들의 경향을 충족시킨다면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만약 그 자율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지출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⁴⁾.

포웰로튼(1975)은 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노인센터의 거주자들은 대면상호작용이 쉽게 지원되는 장소보다는 다름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가 많은 장소에 군집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가 프라이버시에서 생기는 개인의 자율의식으로 인해 평형을 이룰 때 더 쉽게 발생한다.

②건축적 측면 : 직접적 접근성은 말 그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공유라는 것이 참여에 의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심적공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찰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 벽과 동인한 재료로 처리된 출입문이 그 문의 위치와 조작법을 사용자로부터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마저 주게 되어 그 공간이 휴게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쫓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것은 직접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지만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공간으로의 접근은 행위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공용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의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는 형태로 실이 배치되어 있다면 입구에서부터 개인의 영역은 사라지고 심적, 불안이나 거부감이 높아질 것이다. 공용공간의 모습은 강한 끌어들임을 갖으면서도 공간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

3. 노인행태를 고려한 디자인개념 분석

3.1. 노인주거 주요 디자인개념

①자아확인 : 공동주거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표현하여 확인할수 있는 계획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②소속성 :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듯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나, 애착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거나 하는 것은 건축디자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③다양성 : “주거”의 본질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단일화된 공동 생활을 거주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몇가지 다양한 생활 방식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영역성 : 공용공간에 대한 공동 영역성을 부여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사회생활과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친밀성 :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디자인적 배려가 계획되어야 한다.

⑥융통성 : 내부 공용공간의 설계는 공간 사용 가능성을 분

4)최미옥,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론

석하여, 가변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편의성 : 노인들의 체력,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의 위치, 각 공간간의 연결방법, 공간의 적정 규모 등을 파악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⑧향수성 : 거주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사성을 표현하며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2. 노인들의 예상행태 도출

노인행태를 고려한 디자인 개념에 따라 각 공간에서 예상되는 노인의 행태는 각 영역별인 준사적영역과 준공적영역, 공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준사적인 영역에서 노인의 예상 행태

공간 유형	공간별	공간에서 행태적 의미	예상되는 행위
생활 편의 공간	계단실	보조성 자주성 편의성 안정성	· 계단이용시 힘들때 엘리베이터 이용 · 계단이용시 거주자간의 만남 · 계단 이용시 잠시 휴식
	복도	인지성 사회성 안전성 영역성	· 보행이 불편한 거주자가 복도 이용 · 복도 이용시 잠시 휴식 및 이웃과의 담소 · 개인세대 혼돈 여부

<표 3> 준공적인 영역에서 노인의 예상 행태

공간 유형	공간별	공간에서 행태적 의미	예상되는 행위
생활 편의 공간	홀 · 엘리베이터	친밀성 편의성 다양성 사회성	· 엘리베이터 기다림 (앉기, 물건 잠시 놓고 기다리기 등) · 이웃 거주자와의 친교

<표 4> 공적인 영역에서 노인의 예상 행태

공간 유형	공간별	공간에서 행태적 의미	예상되는 행위
기초·여가·생활	로비	친밀성 사회성 영역성	· 로비에 앉아 오고가는 사람 관찰 · 사람들을 만나 잠시 대화 나눔 · 관심사와 연계성
	공동 식당	사회성 자주성 다양성 보조성	· 신체적 조건이 나쁠 때의 식사 · 식사시 외부 경치 감상 ·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룹식사 · 전체 행사사의 단체식사 · 식사시간 전후의 담화
공간	휴게실	친밀성 영역성 다양성	· TV시청, 소그룹 친교 등 · 다양한 위치와 배치 속에서 노인들이 선택
	다목적실	사회성 소속감 친밀감 다양성	· 종교집회, 대그룹, 교양강좌 · 대그룹 활동 전후의 이웃과의 만남
	운동 시설		· 신체적 조건에 따른 운동 · 운동시 잠시 휴식 · 거주자 운동 관찰 · 친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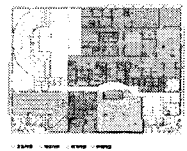
4. 노인예상행태에 따른 시설별 공간 분석

4.1. 조사대상시설의 개요 및 공간기능 분석도

<표 5> 조사대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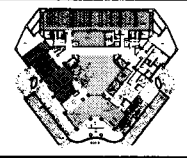
구분	K시설	N시설	Y시설
위치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유형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도시근교형
세대수	142	554	105
건립연도	2003	2001	1988
연면적(㎡)	23,888.92	160,296	2,223

<표 6> K시설 각층 평면도

		
지하2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2층은 의료행위와 이에 맞은편으로는 운동시설로 분리되어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수평동선이 강하게 나타나져 있다. 지하2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가시설 공간은 모든 실을 경유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내용에 따르면 Francis(1989)는 공용공간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직접적 접근성이라고 하였다. 말 그대로 쉽게 접근성이 용이해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K>시설에서의 거주노인들이 사회접촉이 왕성해야할 여가시설에서는 실의 관통으로 인하여 관찰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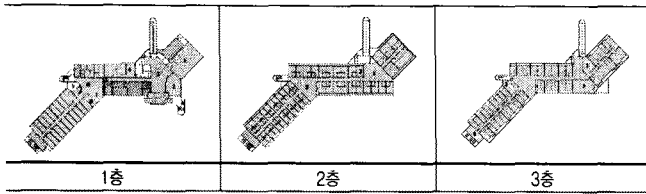
<표 7> N시설 각층 평면도

		
1층	2층	7층

<N>시설의 1층 평면도를 살펴보면, 로비에는 자치 배회하는 장소로 각인되기 쉬우나 여기에서는 별도의 실내 조경을 유도하였고, 예기치 않은 만남을 갖더라도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수납장을 이용할 때 공용공간을 지나치게 되므로 자연스런 사회적 교류가 예상된다. 지상2층은 현 아파트의 일자형 형태를 탈피하여 V형의 평면 형태로 두 개의 왕으로 실배치가 되었다. 각각의 복도 끝측은 엘리베이터 홀이 위치하여 있다. 또한 휴게실 역할을 도모하여 자연스런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공용공간 역시 마련 되어있어 입주노인들의 자연스런 사회적 접촉을 증대 시킨다.

5) Galen Franz 외 2인 공저, 'A User-Oriented Evaluation of Francisco's Public Housing for the Elderly', 김혜경, 고령화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경춘사, 2000 재구성

<표 8> Y시설 각층 평면도



2층을 살펴보면 1,3층은 휴게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2층은 당 구장이 위치하여 있다. 이것은 휴게실 옆에 위치하여 사회적 교류가 늘어날 것이다. 3층에서는 공용공간이 각 개인실에 옆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사적공간에서는 타 공간과 충분히 분리되어 충분한 프라이버시와 공간사용에 대한 자유권을 주되, 동시에 타인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4.2. 각시설별 노인예상행태에 따른 분석

공용공간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빈번한 계단실, 복도, EV홀, 로비, 공동식당, 휴게실, 다목적실, 운동시설,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예상행태에 따라 각 시설별로 종합하면, K시설의 건립년도를 살 03년, Y시설보다는 최근 건물인 반면 준사적영역인 복도와 계단실에서의 사회성을 고려한 공간은 매우 저조했다. 따라서 개인영역에 접해 있는 부분에서의 사회적 접촉 빈도는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N시설의 경우 K시설과 같이 영리 목적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공용시설에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실에는 항상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배려가 보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런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사회교류는 증대 될 것이다. Y시설은 개인실과 접한 영역에서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이 많이 고려되었으며, 운동시설 및 의료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의 배려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시설의 미비는 오래된 건립년도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표 9> 노인 예상 행태에 따른 각 시설별 계획 분석

영역별 분류	공간별 분류	K시설	N시설	Y시설	
준사적영역	복도	△	○	○	
	계단실	△	○	○	
준공공적영역	엘리베이터 홀	△	○	-	
개인영역	기본생활	로비	△	○	○
		공동식당	△	○	△
	여가생활	휴게실	△	△	○
		강당 및 다목적실	○	○	○
		운동시설	○	-	x
	의료시설	의료시설	○	-	x

4.3. 집합노인주거시설의 공용공간의 계획 방향

노인주거시설은 주동으로 들어오면 사적 공간으로 변해 버리는 일반 공동주거와는 다르게 고령자주거에서는 공간의 성격이 더 세분화하여 일반 주거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커뮤니티

가 매우 중요한 고령자들에게 프라이버시도 동시에 고려되 명확한 구분에 의한 단절이 아니라 단지구성 영역에 따라 단계별로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성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준공공적 공간은 복도, 이동통로 상의 알코브 공간, EV홀, 로비 등의 소규모 만남이 일어나는 곳, 이동 선상에서 부딪히는 일시적 만남,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 역시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의 공용공간인 로비 부분에는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지나가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계획을 고려한다.

5. 결론

고령자집합주거 계획에서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서 오는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사회적 접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간의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중요하며, 접근성에 따른 물리적 환경 즉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접근하는 동선과 환경 조성이 달라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공간에 대한 시각적·청각적 침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스스로 커뮤니티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셋째 공용공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세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획일적 공용공간의 분포도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N시설의 경우는 자연스레 사회적 접촉과 연계를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형태로 다양한 공용공간의 구성 및 계획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이인수 외,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 오수용, 중·장년층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한 욕구조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은주, 유료양로원의 주거단위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1
- 가족연구시리즈3,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총서, 노인과 주거(재구성)
- 최미옥,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론
- Galen Franz 외 2인 공저, A User-Oriented Evaluation of Francisco's Public Housing for the Elderly, 김해정, 고령화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경춘사, 2000 재구성
- 이관용, 노인건축, 세진사
- 최웅·이상호, 실버타운의 事例를 통한 公用空間構成要素와 面積에 關한 研究,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김희옥, 고령자를 위한 집합주거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론
-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공용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론